

名譽教授칼럼

冠岳 樹木園의 意味



李昌福

〈47년 農大卒, 前母校교수〉

관악산의 정상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면, 서울대 교정 앞의 수목원이 눈에 들어온다. 수목원은 서울대 교정의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수목원은 서울대 교정의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수목원은 서울대 교정의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관악산의 정상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면, 서울대 교정 앞의 수목원이 눈에 들어온다. 수목원은 서울대 교정의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수목원은 서울대 교정의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수목원은 서울대 교정의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保有樹種 세계에서 上位圈돌입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공산권 국가에서도 種木요청.

亂世를 살아가는 방법

亂世를 살아가는 방법. 亂世를 살아가는 방법. 亂世를 살아가는 방법. 亂世를 살아가는 방법. 亂世를 살아가는 방법.



同門 수필. 同門 수필. 同門 수필. 同門 수필. 同門 수필.



沈在龍

〈母校 人文大 교수〉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沈在龍의 글.

發毛劑

健康교실 14



洪文和

〈37년 藥大卒〉

母校 명예교수

여기서 시작하게 된 이 발모제는... (text continues in columns)

있고 있지만, 아직도... (text continues in columns)

사실이다. 열 손가락의... (text continues in columns)

시원한 열매를 볼 수... (text continues in columns)

다. 꽃베고니아... (text continues in columns)

꽃베고니아 洋蘭 仙人掌이 알맞아... (text continues in columns)

식물생장 透明한 用器속서 돋보여... (text continues in columns)

테라리움... (text continues in columns)

관상원예 1... (text continues in columns)

관상원예 1... (text continues in columns)

관상원예 1... (text continues in columns)

관상원예 1... (text continues in columns)

관상원예 1... (text continues in columns)

관상원예 1... (text continues in columns)

관상원예 1... (text continues in columns)

관상원예 1... (text continues in columns)

관상원예 1... (text continues in columns)

테라리움... (text continues in columns)

관상원예 1... (text continues in columns)

관상원예 1... (text continues in columns)

母校소식

88학년도 季節수업
27일부터 수강신청
계절수업에서 이수하여
6월27일(수)부터 7월30일(토)까지 5주간 실시
88학년도 계절수업이 오는 6월27일(수)부터 7월30일(토)까지 5주간 실시된다. 계절수업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학사과정 이수학점 6학점까지이고,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이수학점 2만 원까지에 포함된다.

保健大學院長 투표로 추천받아 任命

自律性 제고위해 他大學·院에도 적용될듯

지단장 11월 16대 보건대학원장에 모교 최초로 교수투표에 의해 추천받아 취임했다. 이는 3월30일에 보건대학원교수회의에서 열린 총장과 보건대학원교수회의 간담회를 통해 총장으로부터 대학원장선출명단에 대해 ▲총장이 대학원장을 선출명단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제1호에 2명의 후보자를 총장에 추천한 후 총장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는 제2호 등을 제1호에서 비롯되었다. 이날 교수들은 두가지안을 투표에 부쳐 제2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단장은 1일 오후에 투표를 통해 총장과 교수회의를 통해 총장에 추천한 결과 총장이 원장에 임명했다. 한편 지단장은 10일자로 임명장인 金正根前임장이 추천한 鄭元植을 원장으로 임명했다. 鄭元植은 최후의 비의사

이런 보건교수 임명과정은 올해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 아래 분교부가 가지고 있던 학·원장의 임명권을 총장에 돌려준다는 방침이 반영되어 있다. 학·원장은 공개적인 교수회의를 거쳐 임명되고, 교수의 방식은 지단장에게 추천한 교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다.

修練医 선발에 豫科성적 반영

自然大요청 医·齒大으로부터 실시키로

의대와 치대에서는 현행 본과 4년간의 성적만을 수련의 선발기준으로 활용하던 제도를 변경, 豫科과정을 성적도 포함해서 반영키로 했다. 이 해교수와 또 한명의 교수들이 원장 후보로 총장에 추천한 결과 鄭元植이 원장에 임명됐다. 한편 지단장은 10일자로 임명장인 金正根前임장이 추천한 鄭元植을 원장으로 임명했다. 鄭元植은 최후의 비의사

齒科진료부 건립案 통과

延 4천평 규모... 89년 착공 91년完工

6일 병원이사회
지단 6일 오전11시부
터 서울대병원 이사장인
趙完圭총장 주재하에「병
원이사회」가 열려 치과
진료부 건립안의 통과를
으로써 최후의 비의사

예산편성 문제점 지적

會計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서
지단 6일 오후 3시
문화관 국제회의실에서
모교 자율적 발전방안의
일환으로「대학예산 회계

서울大病院長에 韓鎔徹원장 留任



원장이 유임, 발령을 받
았다. 86년 5월부터 5
대 원장으로 임명된 韓
鎔徹는 그동안 시험관아
기 시술의 보편화, 국내
최초의 간이식수술, 세
계 최초의 인공심장
발달을 이룩했다.

美國學연구소장에
心理學科曹大京교수
지단 12일부로 미국학
연구소 소장에 李相沃교
수(영문학)후임으로 韓
大京교수(심리학)가 임
명되었다. 韓교수의 약력
은 다음과 같다.